



CBMC

미주서부한인 K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1월 - 하나님께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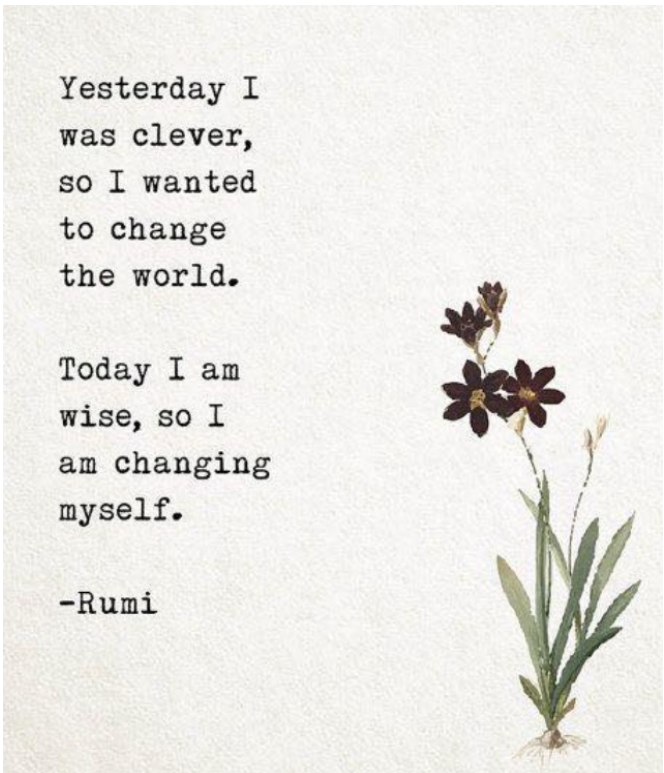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73:28)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신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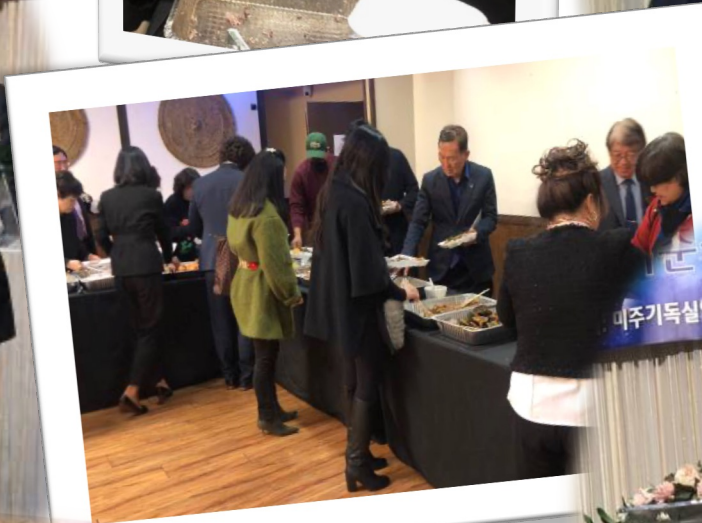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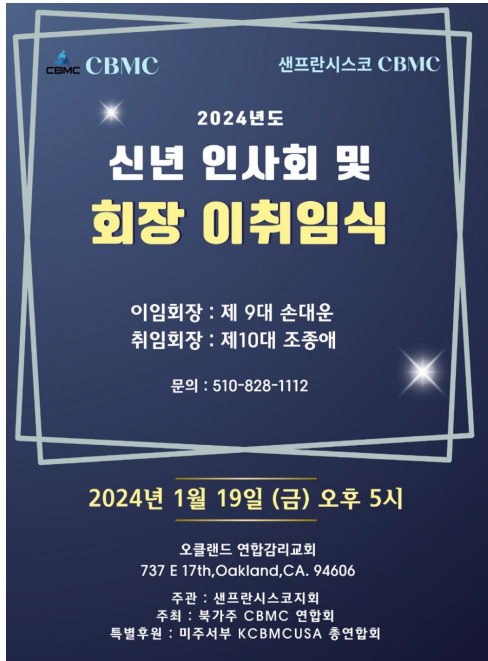
미주서부한인기독실업인총연합회(총회장 강승태, 남가주연합회 회장 이봉우)는 지난 5일 아로마센터 5층 연회실에서 신년인사회 및 이춘근 박사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봉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통일전망에 대한 이춘근 박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차례	
기적 중의 기적	1쪽
남가주 신년식.	2쪽
신년식의 이모저모	3쪽
SF 지회 회장 이취임식	4쪽
이취임식의 이모저모	5쪽
신년 인사의 장	6쪽 ~ 7쪽
하프타임의 미학-최승암 목사	8쪽
땅끝향기 - 김보순	9쪽
광고	10쪽-1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대회 및 리더쉽 특강 - 트라이밸리 회장 이취임식 -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 서부총연 조직도 	
총회 및 모임 안내	13쪽

미주한국인기독교실업인회
신년식의 이모저모





“복음으로 일터를 변화 시킨다”



19일 CBMC 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실비아 리 산타클라라 지회장, 박성희 트라이밸리 직전회장, 정경애 EB 한인회장, 조길호장로, 조종애 신임 회장, 신승수 고문, 강승태 총회장, 손대운, 임승쾌 전임회장.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 총연합회(KCBMCUSA) 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19일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정현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9대 손대운 회장이 이임하고 10대 조종애 회장이 취임했다.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총연합회 강승태 총회장은 조종애 신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조종애 회장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 CBMC 창립이래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라면서 “일터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기부터 회원으로 섬겨오다가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CBMC의 비전을 잘 감당해보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됐다”면서 “복음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종애 회장은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한 일터 변화와 CBMC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에도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계용식 북가주 연합회장과 신승수 총연 고문, 임승쾌 전임 회장은 축사에서 “오는 4월25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서부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환 부회장 사회로 열린 행사에서는 최윤정 수석 부회장의 대표기도와 이임하는 손대운 회장의 이임인사와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또 최윤정 수석 부회장과 김경환 부회장등 임원에 임명장 수여와 배지 증정도 있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경건의 시간에는 홍성준 목사(예수전도단) 인도에 의한 찬양과 정현섭 목사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내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최희숙 권사(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축복하노라’ 축가로 취임을 축하했다.

미주서부한인기독교실업인회 SF신년 인사회 및 은혜와 평강 회장 이취임식의 이모저모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신년 인사의 장



남가주 지회장 김경배

2024년 한 해 CBMC 남가주지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직책을 사양할 수 있는 여러 합당한 당위성이 있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펼쳐지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일'임을 잊었을 때, 할 수 있는 자기변명들이었습니다. '말겨진 하나의 일이라도 잘 해야지... 일을 벌리는 것은 둘 다 그릇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은 익숙한 우리 개체적 생각이고, 크리스찬으로써 소명을 인식하는 공동체적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직책을 권유받았을 때부터 정말 난감한 마음이었지만,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은,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사역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상위 목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발자국 더 순종으로 내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심을 재인식하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직책을 받은 지금은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협력하여 지회원님들을 섬기며, CBMC 사명인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선한 일을 일상에서 이루어 내는 일이 CBMC 회원의 소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뤄지는 삶의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허락하신 직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표제를 이루는 지회원들로 정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타클라라 지회장 실비아 리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며칠동안 밤새도록 온 비로 인해 앞잔디와 주위의 산들은 아름다운 그린색으로 산뜻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새로 솟아나는 어린 풀들과 초록빛 산들은 하늘빛 하늘위에 떠 있는 하얀구름과 상쾌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는 듯 합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요란하며 어지럽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사역과 복음전파가 어느 때보다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서부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부흥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CBMC 식구들이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모두 함께 누리시며, 각 가정의 축복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는 귀한 승리의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5)



새크라멘토 지회장 최계영

미주 서부 CBMC 동역자 여러분, 모두 평안 하시죠. 2024년도가 시작 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6-17). 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한 날 한 날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크라멘토 지회도 하나님께서 한분 한분 소중한 분을 보내주시고 주안에서 교제함으로 말씀과 만나로 자라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과의 왕래가 줄어들고 전도가 힘들어 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가 매주 만나와 그 속에 감추인 성경말씀으로 훈련한 우리CBMC 일터 사역자들이 빛을 발하여 각자의 생업가운데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조차, 성경을 주제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것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터 사역자들은 모일 때 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분을 경험한 삶을 나누는 일을 날마다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을 세상가운데 비추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2024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 지회원들에게 임하여 우리모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4월에 개최하는 미서부 대회 '믿음으로 하나되자'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사업이 확장되어 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CBMC 미 서부 각 지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장

Happy new year!!
갑진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한해동안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뒤돌아보면 한걸음 한걸음이 주님의 은혜요 존경하는 CBMC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희망찬 2024년 !

부디 온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이루고자하는 좋은 꿈들 놓치지 마시고 기필코 승리하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되시기를 두손모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태 총회장

각 가정위에 일터위에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고문

회장님! 그간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기필코 CBMC가 4월서부대회 성공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장님의 의지가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강승태 총회장님과 대회를 잘 이끌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CBMC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하프타임의 미학]

최승암 목사 (트라이밸리 CBMC)

“다시 젊어 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재미삼아 해보는 질문임에도 어느 시절 하나를 답하기가 쉽지 않다. 각 시기마다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했던 아픔의 기억들이 선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젊은 시절에 인생이 잿빛이 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싶다.

5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젊음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희망이다.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힘든 일을 하며 땀을 뿜어도 건강하고 밝아 보인다. 젊음의 시간은 꿈틀거리고 역동적이어서 실패하더라도 잠깐일 뿐, 인생 전체를 그 안에 묶어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패의 여운이 조각배가 되어 젊음이 대양으로 나가는 길을 터 주기도 한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 다’고 하나보다.

하지만 정작 젊음을 현재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름다움이나 희망을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듯하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다가가도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인생의 밝은 빛줄기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난다. 처음엔 생소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낯익어 가는 검은 장애물... 두려움이다.

경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시험에 낙방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실패를 타고 오는 것만은 아니다. 자주 성공의 뒷덜미를 옥죄기도 한다. 다음에 이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시간을 성공과 실패에 연루된 두려움에 내어주며 살아간다.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성공 신화의 그늘 아래,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경쟁, 비교, 우월, 열등, 이겼다, 졌다 등, 성공 혹은 실패의 잣대로 삶이 평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 있다고 믿는다.

성공의 궤도를 향해 앞서고 뒤처지며 한바탕 달려다 잠시 서서 가쁜 숨을 고르고 지친 몸을 기대는 시점을 만난다. 인생 전반전이 마감되는 시기이다.

이 때 즈음,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인생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성공과 행복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형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내면의 공격으로 휘청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성취와 성공이 판을 벌인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와 냄새나는 찌꺼기만 남은 파티의 실체를 보며 공허감과 허탈함에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드는 케이블 TV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탁월한 사업가였다. 인생 전반부에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실체, 부와 명예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마주하면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될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아울러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반부 인생의 주제가 ‘성공’이었다면 후반부 인생은 ‘의미있는 삶’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성공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

최근 몇 년간 나 역시 인생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삶의 근거지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20여년의 젊음을 불태웠던 적도의 땅...
독한 표현으로 난 그곳에 뼈를 묻을 줄 알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넓게 드리워진 검은 대륙.
질병이 울타리 안에 맴돌며 늘 손짓하는 땅.
문명의 혜택이 결핍되어 불편함이 일상인 생활공간.

무슨 생각을 하며 20여년을 그곳에서 살았을까?

아프리카 땅을 회복하고 그곳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우주보다 크신 분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은 순간 그들을 보는 순간 그 부르심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인생 전반부가 시동이 걸렸다.
동시에 나와와 전쟁도 시작되었다.
죽음, 질병, 안전의 위협을 향해, 문명의 이기와 타협하려는 내면의 유혹을 향해 전투적인 정신 무장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싸움에서 성공했다고 믿어왔다.

미국으로 옮긴 지 어느새 몇 년이 지났다.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꽤 큰 변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터널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도 터널 속에서 알게 되었다.
덕분에 전반부 인생을 차분히 들여다 볼 여유가 생겼다.
열악한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나름 의미와 보람이 풍성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이유가 뭘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이 분명한데, 왜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의 연기가 피어 올랐을까?

목상의 결론은 무엇을 했느냐 (what)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how)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땅히 살아내야 할 덕목들 (헌신, 결단, 희생, 절제)이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보다 시험을 준비하듯 애쓰고 힘쓰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번아웃 상태로 몰고간 것이다.
무언가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부지중에 다른 무엇을 강하게 움켜쥐는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아름다운 덕목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되었고 결국 목표를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의 예외 조항일 수는 없었다.

“다시 젊어 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80대 (30년 후)의 나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하프타임~”
이렇게 답하고 싶다.
성취로 인한 자신감의 지지대는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다가오는 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 바위 위에 서있는 것 같은 시기.
그러나 달리던 경주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지난 인생의 점점과 미래 인생의 방향 수정이 가능한 시기.

전반부 인생을 사느라 애쓴 젊은 나를 따듯이 보듬어 토닥여주고, 후반부에 ‘나’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혀갈 새로운 나를 맞아들인다.
불안을 밀어내고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자의지의 힘으로 무리하게 무언가를 움켜쥐기 보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영혼과의 따뜻한 공감에 눈맞추며 한걸음씩 걸어가 보련다.

땅끝향기

푸른 초장

김보순

해마다 우리가 속한 KGAM(Korean Global Alliance Mission)의 가족모임 겸 정기모임이 열린다. 그 중 1997년 2월에 있었던 모임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모임에서 우리 팀은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세우기로 했다. 장소는 치앙마이이고 우리 가정이 기숙사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당시 우리는 30대 초반이었고 3살, 4살된 두 딸이 있었다. 어린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긴 선교부도 대단하고 그것을 해 보겠다고 수락한 우리 가정도 무모했던 거 같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큰일인지 알았으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일을 덜컥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안다.

선교지에 오기 전에 교사로 일하면서 교사를 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고, 야간에 선교대학원에 다니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선교사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실 때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었다. 그리고 방콕에서 언어를 배우는 동안 우리의 사역지가 메솟에서 치앙마이로 바뀌었다.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카렌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위해서 총회와 신학교가 있는 치앙마이로 오라는 현지 교단의 결정 때문이었다. 우리의 사역 장소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변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부르심의 내적 확신과 현지 상황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사역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997년 6월에 방콕에서 태국어 언어습득 과정을 마친 우리 가정은 치앙마이로 이사하여 방 다섯 개의 큰 집을 빌려 기숙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름을 '푸른 초장'이라 지었다. 남편은 두 번째 사역언어인 카렌어 공부에 전념하고 나는 기숙사 사역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팀의 제안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기간 동안 12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생활했다. 그렇게 시작된 푸른 초장이 23년이 지난 지금(2020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다. 푸른 초장을 거쳐 간 선교사 자녀들도 많고 기숙사 부모로 섬긴 분들도 여럿이다. 한국 선교 역사상 푸른초장이 첫 선교사 자녀 기숙사라고 하니 나름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았음에 감사한다.

성장 환경이 다른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다. 기숙사 부모가 안식년을 가야 할 때 대체할 사역자가 필요해서 두 번 더 푸른초장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다, 세 번의 섬기는 기간 동안 에피소드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다. 열악한 선교지로 떠나며 자녀를 이곳에 보내는 부모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있다.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선교사 자녀들인데 여러 명이 같이 지내다 보면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기에 기상 및 식사 시간에 제약이 있고 더불어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들도 있다. 삼십 대초반이라 사춘기 청소년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우리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때는 우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같이 살아준 아이들이 대단하다 싶다.

그런가 하면 푸른 초장 사역자로 누린 많은 축복도 있었다. 팀으로 사역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움을 나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이곳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당시 그 상황에서 필요했던 기숙사 사역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에 감사를 드린다.



제2차 미주서부 KCBMCUSA

San Francisco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성경적 경영!

믿음으로 하나 되자 (히11:6)

One in the Faith!



대회기간

2024년 4월25일(목) 오후5시 ~ 4월27일(토) 12시 정오

장소

Embassy Suites Burlingame SF airpor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주강사



주강사: 최혁 목사
(주안예 교회 담임목사)



특강: 풀김 부학장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간증: 윤형주 장로
(은누리 교회)

등록

개인 \$200 부부 \$350 자녀 \$100 (조기등록 3월15일까지)
개인 \$230 부부 \$400 자녀 \$100 (3월15일 이후)
<2박3일 전체 강의 및 저녁2회, 점심2회 포함> 호텔비: \$378+tax (조식 포함) / 2인1실 (2박) 자녀 무료

문의

408.623.5818 / kcbmcusa2019@gmail.com

주최: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 총연합회 (KCBMCUSA) 총회장 강승태

주관: 북가주 연합회 준비위원장 계용식, 손대운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트라이밸리 CBMC

신년 인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임회장 제3대 박성희
취임회장 제7대 이광용

문의 : (415)980-9159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신시스 오피스
5990 Stoneridge Dr. #118
Pleasanton, CA 94549

주관 : 트라이밸리 CBMC

주최 : 북가주 CBMC 연합회

특별후원 : 미주서부 KCBMCUSA 총연합회

** 화환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 귀담아 들겠습니다. 😊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 총연합회

총회장 - 강승태

직전 회장 : 황선철
 상임 고문 : 모종태
 신승수
 염창섭

사무국장 : 박성희
 재무 : 린 최
 서기 : 데브라 홍
 감사 : 최종원, 성주형

부회장 - 오윤호
 서북부 연합회 회장
 부회장 - 윤여민

부회장 -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 회장

부회장 - 계용식
 북가주 연합회 회장

시애틀 지회 (지회장 : 오윤호)
 페더럴웨이 지회 (지회장 : 박상규)
 하와이 지회 (지회장 : 윤여민)

남가주 지회 (지회장 : 김경배)
 코리아타운 지회 (지회장 : 오현근)
 부에나팍 지회 (지회장 : 최순자)
 가든그로브 지회 (지회장 : 민 김)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회장 : 조종애)
 새크라멘토 지회 (지회장 : 최계영)
 트라이밸리 지회 (지회장 : 이광용)
 산타클라라 지회 (지회장 : 실비아 리)
 SFDT 지회 (지회장 : 박래일)
 트레이시 예비 지회 (지회장 : 허정무)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서부 한인기독교실업인 총연합회 (KCBMCUSA)

2024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Arise Shine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김경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최순자)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조종애)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이광용) -모임 : 매주 정례(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산타클라라 지회 (회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